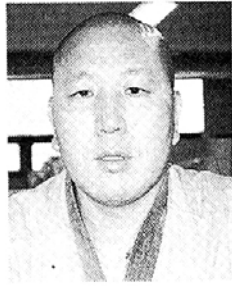


“南美 포교할 스님 어디었어요”

해외포교사 찾는 브라질 전각사 정오 스님



브라질 전각사 RUA SAO DANIAL 14-CEP: 04288 VELA ☎273-8487

도필선 기자

“남미불교 포교에 원력 있는 스님이나 법사님 어디 없습니까?” 95년부터 남미지역 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오 스님(브라질 전각사 주지)이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 해외포교에 관심을 가진 스님들과 법사들을 수소문하다 지쳐 9일 본사를 찾았다. 스님은 “출국일은 다가오는데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등 지도자가 없어 비어있는

질을 생각하니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교할 대상이 뻔히 있으면서도 스님이 없어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라며 “스님과 법사들이 해외포교에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님은 날로 늘어나는 신도와 브라질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지난해 말 대중전 공사를 시작해 오는 4월 완공할 예정이다.



평통지우위원장 표창 받아



윤덕 천태 종무원장은 13일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족평화통일정책위원회의 유공자문위원 의장표창 전수식에서 평화통일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석왕사 가족의 밤’ 행사



영담 석왕사 주지는 10일 부천시 민회관 대강당에서 ‘석왕사 가족의 밤’ 행사를 펼쳤다.

청주불교단체협의회 신년하례

김현배 청주불교단체협의회 회장은 10일 청주불교방송국 10층 강당에서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MBC드라마 ‘6남매’ 출연



장미희씨(영화배우)는 2월 4일부터 방영되는 MBC드라마 ‘6남매’에 출연, 여섯아이를 키우는 홀어머니역을 맡아 지혜롭고 강한 여성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취임



구윤희 등 국내 불교대학원 제4대 총동창회장은 20일 오후 7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그릴에서 취임법회를 가졌다.

제13회 ‘선미술상’ 수상

임효씨(한국화가)는 선화상이 정하는 제13회 선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됐다.

동국대서 석사학위 받아



신진욱 진흥원 불교문화센터 법사는 ‘불교방송 청취자의 수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한 논문으로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남북불교 교류확대 보람”

美서 7년만에 귀국 전각종 지현정사



한명우 기자

“돌아오자마자 이달달 인기가방을 사복복자법인 사무국장직을 맡게됐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 아쉽긴 하지만 종단의 중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각종 불광심인당 주교보다는 미주 광불협 상임부회장으로 교계에 알려져 있을 정도로 남북불교교류에 많은 역할을 해 온 지현정사(41)는 북미지역 포교를 위해 귀국한 지 7년 못지않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종단 해외포교의 기틀을 다지고 광불협 미주본부 활동을 통한 북한불교와의 교류를 확대했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또 교포사

국내 복지활동 문학 작품구상 등 바쁘하루 보내

회에서 종단의 이미지를 높였다는 점도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포교에 대한 내실을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큼니다. “복지법인 일 외에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문학작품활동 등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또 종조일대기도 내용을 수정·보완해 완성할 계획입니다. 물론 광불협 활동은 아직까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할 생각이구요.”

“국악 트롯 바람 일으킬터”

가요음반 낸 텔런트 선동혁



김지연 기자

곡을 수록해 홍보용으로 먼저 나온 이 음반은 시중에도 곧 출시돼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게 된다. IMF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한 청년 남자의 비탄 어린 인생회상이 절제된 ‘인생’은 정통 트롯가 아닌 국악적 장법을 도입해 신트롯이 트롯의 향기를 풍긴다. ‘내 고향길’은 선씨가 직접 작사까지 했다. 선동혁씨는 “앞으로 2집을 낼 기회가 있다면 불교법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백제가요 신라가요 등에서 보여준 가사들을 현대적 음악으로 재검독시킨 음반을 내고 싶습니다”며 포부를 밝혔다.

“내실있는 신행추구” 전각종 청년회장 선상신씨

김지연 기자

“국악인 신영희선생 밑에서 국악을 3년간 사사받았습니다. 국악인이 될까 하다가 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텔런트가 됐죠. 그러다 보니 노래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용의 눈물’에서 이숙빈 역으로 선동혁은 남성의 이미지를 부각해온 텔런트 선동혁(42)씨가 트롯트 가요음반을 냈다. 이틀 곡 ‘인생’을 비롯 총 8

명동성당서 특별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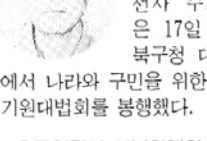
법정 맑고 향기롭게 모임 회주스님은 2월 24일 명동성당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구암 14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개인법회에 김수환추기경이 참석, 축사를 해준데 대한 보답이다.

예비역 군법사회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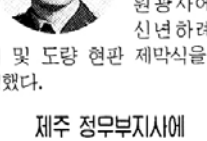
성광 조계 종사서실장(화계사 부주지)스님은 5일 예비역 군법사회 회장에 선임됐다.

나라와 국민위한 대법회



동광 강북 구 불교협의 회장님(도선사 주지)은 17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신년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호국원경사 신년하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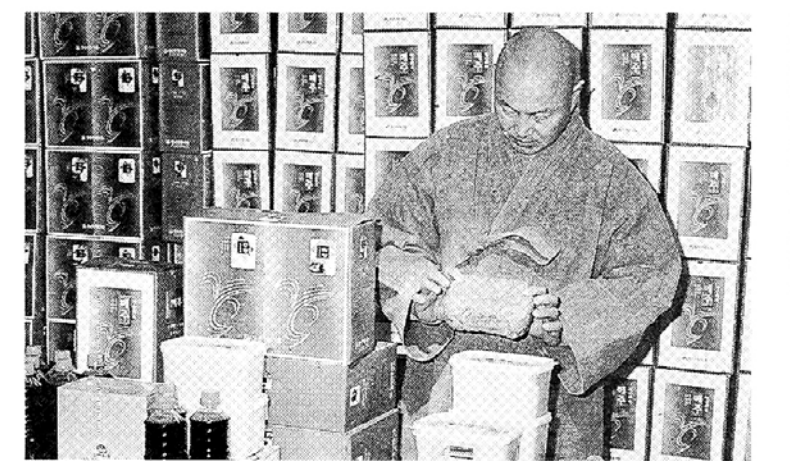


이협우 호국원경사 주지법사는 11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회 및 도량 현관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주 정부부지사에



김승석 전 한라불교신문 사장(변호사)은 1일 제3대 제주도 정부부지사에 임명됐다.



Focus

전통된장이 안방을 두드리고 있다. 대구 예술마당 술이 16일 부터 21일까지 ‘우리전통음식 원장전’이라는 이원장은 돈연스님과 ‘메주와 켈로리스’ 저자 도완씨가 강연도 정선의 해발 7백m고지 두타초암에서 만든 것. 우리콩으로 만든 메주와 맑은 계곡물로 담은 무공해

겨레의 맛 토종된장 ‘불티’

식품이다. “태아를 키우는 마음으로 만든다”며 자랑하는 이 원장은 용기독속에서 켈로움을 들으며 숙성된다. 한편 조계사, 봉은사, 석왕사 등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시판되고 있는 메주는 IMF 한파에도 불구하고 우리것을 살리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어린이법회 지도 이남숙씨



“어린이법우 여러분! 오늘은 (한글 천수경)을 우리 다함께 끝까지 독송합시다. 조금 길지만 부처님 생각하면서 하면 할 수 있지요?” “네-에-!” 고은 고사리손을 합장한 어린이불자들의 모습에 자못 흐뭇해 하며 이남숙씨(46)는 손수 묵탁을 들고 의식을 집전한 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꽃누리어린이법회를 지도해 온 지 올해로 6년째. 대부분 대학생들이 맡는 어린이지도교사자리를 주부가 맡아 이처럼 오래 지도해 온 것은 무척 드문일로 웬만한 원력이 없이는 힘들다. “가장자한 나 자신을 포함해 우리가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현실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구제를 부처님전에 서원했습니다. 어린이법회지도는 그 시작에 불과하지만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하나하나 올라갈 생각입니다”

“미래의 부처님 육성에 보람”

거울보며 율동연습·레크리에이션도 만능

이제는 처음 어린이법회를 시작했을때만 해도 의욕만 넘치고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래서 법회가 있는 토요일이면 아침부터 찬불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혼자 거울을 보며 율동연습을 하기도 했고, 2년여간 돈암포교원, 불교교육연구원 등에서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과정을 마쳤다. “1주일에 한 번 만나는 아이들의 맑은 눈에서 부처님을 봅니다. 나 또한 아이들과 함께 맑아지고, 아이들과 함께 부처님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라고 말하는 이씨.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찰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보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법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얼마전 100일동안 108장의 탭타라니를 사경하는 연화기도를 행하며 중생구제의 서원을 마음속에 되새겼다는 이남숙씨는 “어린이법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한다.

이은자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재해지원을 응원하는 히타모임 1,183,933원 △정토포교원 승만회 1,000,000원 △마산 정인사 354,000원 △연꽃마을 간병인회 200,000원 △김포길 200,000원 △김석순 121,000원 △유성현 100,000원 △김지숙 50,000원 △조정숙 50,000원 △유수스님 50,000원 △네팔인 불자 바버라 40,000원 △이동석 40,000원 △윤남용 40,000원 △방명경 40,000원 △임효정 40,000원 △이은화 32,000원 △양애련 30,000원 △이상수 30,000원 △한주한기금 864,000원 (1월14일 현재 총 901,184,929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佛國寺 僧伽大學(舊 講院) 同門스님들께 알립니다

三寶에 歸依 하옵고
제방의 수행도량에서 求道者의 길을 가시는 스님네와 포교의 일선에서 衆生과 아픔을 같이 나누시는 스님네들께 그동안의 수행에 祝願드립니다.
어느덧 불국사 승가대학도 짧으나마 20여년의 역사가 지났으며, 또 150여년의 履歷宗匠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오나 서로 연락도 안되고 어려울때는 의지도 할수 없는 현실에 몇몇 동문스님들의 發願으로 모임을 갖고자합니다. 冬安居 解制를 하신후 훌훌 털으시고 마스한 봄날 先後輩 동문의 훈훈한 法談을 나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불국사 승가대학 동문스님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1차 연락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2년 1월 일

연락처 : 불국사(경주) 정건스님 ☎ 0561-746-9912
불국사(경주) 성형스님 ☎ 0561-746-9913
오서사(포항) 학나스님 ☎ 0562-92-2083
철보사(대구) 무상스님 ☎ 053-963-8975
대광사(진해) 지상스님 ☎ 0553-545-9597
수도사(영천) 하종스님 ☎ 0563-37-0730
노적사(서울) 종무스 ☎ 02-353-5016

불국사승가대학동문발기모임 합장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圖)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동양 풍수과	2년	■야간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불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91.8 불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준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불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불교세원
95.11 불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11 불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8.2 중앙재민회과, 동양 풍수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1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후원담당인 소인 유료)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 ~ 8 FAX. 511-108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